

서울시 계란의 소비추세

— 계란 소비량 33% 감소 —

서울시의 계란소비량이 33%나 감소되었다. 서울시가 1973년 12월부터 74년 1월까지의 계란소비를 추정한 것을 보면 평상시 하루 455만 3천개 소비되던 것이 현재 그 33%가 감소한 303만 1천개가 소비, 152만 2천개의 계란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소비감소의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서울시 120만가호중 학생수를 150만명으로 볼 때 평상시의 소비량은 112만 4천개로 추정되는데 현재 60만 4천개가 소비되어 1일에 52만개의 소비가 감소 4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감퇴는 국제 원자재 앙등, 특히 에너지파동에 상대적으론 모든 물가가 앙등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가계비중 식료품비를 절약하는데 이에 따라 계란소비도 둔화된 것 같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모든 학교가 조기방학에 들어 감으로서 소비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즉, 전보다 일반가정에서의 전체 소비량이 46%가 감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 다방에서의 소비감소 현상인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 원당등의 가격이 상승되어 얼마전 다방업자들이 커피등의 음료 가격을 인상시킨 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차 다방에서 모닝-커피에 계란을 넣어주던 서비스 제도를 철폐 서울시 전체 다방수 3,069개에서 평상시 1일 45만 9천개를 소비하던 것이 현재 23만개로 22만 9천개의 감량을 보여 50%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세번째는 서울시내 맥주홀 기타 카바레등 주점의 소비감소인데 이는 계란 불경기의 요인도 있겠으나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등의 영향이 작용 주점 2,500개의 업소에서 종전 총 24만 3천개를 소비하던 것이 19만 5천개로 1일 4만 8천개의 감소를 보여 20%가 감소했다.

네번째는 서울시 11,000업소의 음식점, 여관에서 종전 1일 소비 171만 6천개중 34만 3천개(20%)가 감소한 137만 3천개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로 제과 제빵에 있어서의 계란소비의 둔화인데 이는 밀가루, 설탕값 상승등 계란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제과 제빵업소 577개에서 종전 78만 7천개 이상 소비되던 것이 30% 감소한 15만 7천개로 6만 7천개가 감소되어 종전까지 1일 총 455만 3천개가 소비되어 3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비감소 현상은 당분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가 개학이 되고 영업시간이 종전대로 환원연장되면 약간의 소비증가는 있겠으나 물가의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함으로 필수식품 및 필수생활품이 아닌 상품의 소비가 감소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 고급식품인 축산물의 소비증대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은데 계란의 소비증대사업 유통개선 등으로 양계업자는 최소한의 원자상승을 카버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야 하겠다.

<표> 서울시 계란 소비추정(73.12~74.1)

구분	수량	평상시 1일소 비	현 재	1일소 비	감 량	비 고 (소비감소요인)
가 정	가호수 120만호 학생수 150만	천개	천	천	46%	일반가정용 624,000개 도시락용 (500,000개) 학교조기 방학 및 물가안등으 로 계란소비격 감
다 방	3,069	459	230	229	50	모닝커피용 세 비스철폐
주 점	2,500	243	195	48	20	영업시간단축 불경기로 인한 감소
음 식 점 관	11,000	1,716	1,373	343	20	"
제 과 제 빵	577	787	472	315	40	원가절하상사용 업계 (호빵소비 증대)
기 타 (부화, 제 약등)		224	157	67	30	부화중단
계		4,553	3,031	1,522	33%	